

한글날에 신미대사 찬탄하는 이 아무도 없네

567돌 한글날 특집

정찬주 소설가, 북한암서 월성 스님 만남 이유

북천암 경내로 들어서니 채마밭의 때문 냄새가 코를 찌른다. 냄새라고 했지만 사실은 무 향기라 해도 좋다. 무는 날이 차가워 질수록 익은 더욱 파래지고 품은 발독을 험껏 밀치고 선다. 사람도 시련을 겪으면서 알게 모르게 내면이 성장하는 법이다. 마음의 눈을 맑혀주는 채마밭에 한 번 더 눈길을 주고는 바로 월성스님이 계시는 토굴로 간다.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 신미대사

다락 사이에 두고 차를 한 잔 마신 뒤, 찾아온 용건을 말하자 스님의 표정이 급세 환해진다. 스님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훈민정음 창제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신미대사가 스님의 영원한 화두다. 스님이 신미대사의 후신 같다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예전에 친견했을 때는 스님의 신미대사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 지난여름부터 세종실록과 세조실록의 내용을 면밀하게 정독하는 동안 신미대사의 위업을 실록의 행간 사이에서 친견지를 발견하듯 보았고, 이제는 신미대사를 소재로 소설을 써야할 시점이 되고 원을 세웠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신미스님을 너무 몰라요. 그 이유는 실록을 기록하는 유생들이 다 덮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발자국까지 없앨 수는 없지요. 학자들은 몸을 너무 사려요.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의 도움을 받아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지요. 그렇지만 생각해 봐요. 어린 학생들이 부장, 반장을 해도 바쁜데 왕이 언제 훈민정음을 연구할 시간이 있었겠소?”

월성스님은 신미대사가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데 주도적으로 간여했다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유서(儒書)가 아닌 불서(佛書)를 언해했다는 점이다. 세종은 소헌왕후가 별세한 뒤 수양대군과 신미대사의 친동생인 김수온을 시켜 부처님의 일대기인 <석보상절>을, 바로 뒤이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 찬불가인 <월인천강지곡>을 짓고 언해하게 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는 세종이 북한암을 중수케 하고 전각에 삼존불, 즉 아미타불과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을 시주했다는 점이다.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라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많은 절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지리적으로 험한 속리산 북한암에 조성했겠소? 훈민정음을 창제한 신미스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겠지요. 당시는 금동불이었는데 70여 년 전에 소실되어 지금은 목조로 복원한 삼존불이 있지요.”

신미대사, 집현전 학사이자 佛中聖人

세 번째는 <영산김씨세보(永山金氏世譜)>에 나오는 신미대사에 대한 기록을 예로 든다.

“족보는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하는 것이 통례지요. 세종의 총애를 받았고 집현전 학사였다는 기록이 있어야, 매월당 김시습이 유생들한테 갈 때는 꼭 신미스님을 모시고 다녔다고 그래요. 매월당이 신미스님을 ‘불중성인(佛中聖人)’이라고 소개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영산김씨세보> 권1에 ‘세종조에 수성(守省; 신미대사 속명)은 집현전 학사로서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고 나온다. 또한 세보는 ‘문필이 당시에 걸출하여 일세의 무적(無敵)이다’라는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의 내용까지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다. 혹자는 세보의 기록을 두고 원래 족보는 자기 선조를 과장하기 마련이라며 시비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이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문종실록 문종 즉위년 10월 12일의 기록은 세보가 과장이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못 박고 있다.

“임금(문종)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한 바가 모두 족히 의논할 만한 것이 없는 일이다. 다만 신미와 정음청의 일만은 너희들이 심상하게 말하지만, 신미의 직호(職號)는 이미 고치었고, 정음청은 오늘에 세운 것이 아니라 일찍이 이미 설치하였고, 하물며 그 폐단이 없지 아니한가?”

정음청은 언해와 번역서를 간행한 집현전의 유관기관인데 ‘신미와 정음청의 일’이란 무엇일까? 신미대사는 정음청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집현전 학사로서 훈민정음 창제와 불경언해 일에 간여했음을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신미스님은 범어와 티베트어를 통달했지요. 대장경을 열람하시다가 범서장경이 중국으로 들어와 여러 중국고승들에 의하여 번역된 경전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 범서로 된 원전을 직접 보기 위해 범서를 공부했던 것이지요. 훈민정음은 범어의 모음과 자음, 소리글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거지요.”

훈민정음은 유불 대립의 산물

네 번째는 <북천암보감신미대사실기(福泉庵寶鑑信眉堂實記)>에 ‘신미대사는 범어와 티베트어, 불교경전과 유교경전에 통달했다’라는 기록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기(實記)라는 의미는 사실의 기록이란 뜻이다. 비록 구전이지만 절에 전해지는 내용을 가감 없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속리산 북한암의 신미대사 부도. 송할이 애전해베어 있는 하다.



신미대사에 대한 연구와 자료 수집을 평생의 숙원으로 삼은 월성 스님(사진 오른쪽)과 소설가 정찬주 씨(사진 왼쪽)가 한글창제와 신미대사에 대해 대답하고 있다.

창제 앞서 나온 <원각선종석보>

신미 스님의 한글 창제 참여 증거 영산김씨 세보에도 명백히 기록됨

월성 스님 “신미 스님 범어 능통 한글은 범어 소리글 착안한 듯”

당시 유학자들은 창제 반대세력 신미 스님 업적 지우기 공세 나서

잊혀진 불중성인 신미 스님 국가적 조영·선양 필요해

하위지, 박맹원, 사헌부 등의 유신(儒臣)들이 7월 8일부터 날마다 반대를 한다.

“간사한 중에게 존호(尊號)를 내리었으니 바르지 못한 것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으므로 신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이 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비록 세종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하더라도, 또한 생각하여 행하는 것이 대교(大孝)가 되겠는데, 도리어 이러한 좋지 못한 일을 가지고 선왕의 유교(遺教)라고 하시니, 의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청컨대 도로 거두소서.”

그러나 문종은 바로 물러서지 않았다.

“세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왕사(王師)라고 칭하면 불가하겠지만 그 밖의 직(職)은 무방하다.’라고 하시었다. 이는 왕사가 아니고 다른 직과 같으니 무엇이 불가할 것이 있느냐? 만일 세종의 분부가 있다면 비록 왕사라도 또한 공경하여 따라야 한다.”

고려와 달리 조선에는 왕사 제도가 없으니 왕사라고 부를 만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는 문종의 말이다. 문종의 논리에도 세종과 같이 신미대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는 문종은 물론 수양대군, 안평대군, 정의공주 등이 세종의 명을 받아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신미대사의 역할을 지켜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실록에는 신미대사를 공경한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을 비롯한 구절도 보인다.

“수운(守運)의 행이 출가하여 중이 되어 이름을 신미라고 하였는데, 수양대군 이유와 안평대군 이용이 심히 믿고 좋아하여, 신미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무릎을 꿇어 앞에서 절하는 등 예절을 다하여 공경하고 수운도 또한 부처에게 아람하여 매양 대군들을 따라 가서 불경을 열람하며 공경하여 읽으니, 사람(士林)에서 모두 비웃었다.”

결국 문종은 1달 만인 즉위년 8월 7일에 ‘우국(右國)세’와 ‘존자’라는 단어를 뺀 호로 수정한다.

“신미의 칭호를 고쳐 대조계선교종 도총섭 밀전정법 승양조도 체용일여 비지쌍운 도생이물 원응무에 해각종사(大曹溪禪教宗都總攝 密傳正法承揚祖道體用一如悲智雙運度生利物圓融無碍惠覺宗師)로 삼았다.”

김종서를 중심으로 유교 성리학을 내세우며 신권(臣權)을 폐기하던 유신들이 목숨을 걸다시피 하며 신미대사의 존호를 고치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종이 총애했다는 단순한 이유만은 아님이 분명하다. 신미대사가 훈민정음을 창제한 사실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작전은 아니었을까? 이를테면 당시 유생들은 훈민정음 창제의 극렬한 반대 세력이었던 것이다.

집현전 부제학이었던 최만리 등이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했던 논리는 한문으로 전해져 온 성리학의 쇠퇴와 명나라와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무엇보다 송유배론이라는 조선왕조의 국시에 배치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신미대사에게 내려진 ‘우국(右國)세’는 당시였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런데도 세종은 신미대사에게 쌀 5백석과 정철(正鐵) 5만 5천근, 면포 5백필을 내려주었고, 역마(驛馬)를 타고 궁궐을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을 주었으니 유신들의 반발은 문종 때까지 지속적이었고 극에 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조 초기 중에서도 태조부터 세조까지는 겉은 유교국가이나 속은 불교국가였음과 안평대군 이용이 심히 믿고 좋아하여, 신미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무릎을 꿇어 앞에서 절하는 등 예절을 다하여 공경하고 수운도 또한 부처에게 아람하여 매양 대군들을 따라 가서 불경을 열람하며 공경하여 읽으니, 사람(士林)에서 모두 비웃었다.”

시했고, 특히 신미대사를 칙전 안으로 맞아 들어 법문을 들을 정도였고, 대군시절에 간경도감을 지냈던 세종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이를 보면 조선초기의 왕실에서는 불교를 여전히 신봉했다는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 세력이 불교를 외호했던 왕후나 후궁, 대군들과 공주였던 것을 보면 훈민정음 창제는 유불 대립 내지는 왕권과 신권 갈등의 산물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한글 창제의 비밀담긴 <원각선종석보>

1999년도에 입적하신 일타스님이 소장했던 <원각선종석보(圓覺禪宗釋譜)> 권1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원각선종석보 언해본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시기가 8년을 앞서고 있다. 훈민정음을 세조 25년(1443년)에 창제했는데 <원각선종석보>는 정통(正統) 3년 즉 세종 17년(1435)에 간행됐던 것이다. 이는 훈민정음이 이미 신미대사에 의해 만들어져 시험단계를 거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놀라운 사건이다. 실제로 신미대사는 해인사에서 여러 장경을 열람하며 훈민정음으로 언해를 시험해보았다고 한다.

한편, 두시(杜詩)에 조예가 깊었던 흥천사 주지 만우(甘露)스님은 세종의 지시로 두시언해에 착수하였던 바, 의복을 하사받고 예빈시(禮賓寺)에서 3품 관직에 해당하는 녹(祿)을 받았다는 기록이 세종실록에 나온다. 언해라면 신미대사의 조언이 필수적이었을 터이고 신미대사가 진관사뿐만 아니라 흥천사에 주석하면서 비밀리에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흥천사가 신덕왕후의 명복을 비는 원찰로만 알려져 있으나 훈민정음 창제의 산실이었던 문제제기는 학자들의 더 깊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 같다.

월성스님과 불교 두어 시간을 얘기했지만 신미대사가 살았던 6백여 년의 시공을 넘나든 기분이다. 신미대사가 어떤 분인지는 공감한 까닭에 일어나는 자리가 허전하지 않은 것 같다. 스님이 한 마디 덕담을 던지신다.

“글 쓰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신미스님을 세상에 알리겠소?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오.”

북천암 법당에 다시 들어 신미대사의 진영을 봤다. 진영을 자세히 보니 신미대사의 흰 수염이 단전까지 내려와 위엄이 도도하다. 매월당 김시습이 스님을 가리켜 불중성인(佛中聖人)이라 했던 바, 진영의 풍모가 그렇다. 경내에서 5백여 미터 떨어진 산자락에 있는 신미대사의 부도를 찾아가 보니 소쇄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송할이 코를 찌른다. 신미대사의 법향(法香)을 만난 것 같다.

글=정찬주(소설가) · 사진=유동영(사진작가)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종 정 흥 산 현 불

총무원장 원 각

입 증 안 내

1) 입증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반명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증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산 47-4번지 수도사
 전화 041)531-3792 / 팩스 041)544-1080

◆ 불기 2557년 하계 종도 연수 교육 및 포살 대법회에 동참하신 종도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영화제준 3천 4십 1년 음 8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흥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중정)

